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주 경 필*

이 인 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niversity of Georgia

위기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및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제도적·실천적 대상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를 통해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위기청소년을 핵심 주제로 한 전 세계의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총 11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청소년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영역은 사회복지, 가족학, 교육학, 범죄학, 심리학 등 다양하며, 위기청소년 연구의 키워드는 선호적 연결패턴보다는 산발적 연결패턴을 보이고 소수의 키워드가 일정한 패턴 없이 다른 다양한 다수 키워드와 연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상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하위에는 회복탄력성-긍정적 청소년개발-멘토링이 연계된 네트워크, 학교-경험-협력이 연계된 네트워크, 폭력배-사회적 관계망-부모-예방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두드러진 하위 네트워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위기청소년 연구의 주요한 추세를 확인하고 키워드 네트워크에 담긴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위기청소년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위기청소년, 연구 동향, 글로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주지자: 주경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부교수/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3668-4408/E-mail: kpjoo@knouac.kr

** 교신저자: 이인혁/University of Georgia, Dept. of Workforce Education & Instructional
Technology 부교수/225 River's Crossing, Athens, GA, USA/ E-mail: inheok@uga.edu

I. 서론

위기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및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제도적·실천적 대상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동법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제13조), 특별지원(제14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6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8조)에 관해 규정하고, 2021년 3월 23일에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을 신설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이후 위기청소년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 기반이 조성된 시점이다. 현재는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왔으며, 정부의 다양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1). 아울러 교육의 형평성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빈곤, 다문화, 지역격차 등의 배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한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다(이희현 외, 2019)

우리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온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확립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시도되어 왔다(Etzion & Romi, 2015, Follesø, 2015; Lahav, 1992; Resnick & Burt, 1996). 위기청소년에서 ‘위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포괄적 의미인데, 이러한 포괄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립에는 뚜렷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많은 학자가 지적해 왔다(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황여정, 이정민, 2020; Etzion & Romi,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들이 위기청소년을 연구의 핵심 주제이자 주요한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왔다(구본용 외, 2005;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용, 2018;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이창호 외, 2005;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황여정, 이정민, 2020; Janosz, Archambault, Morizot, & Pagani, 2008; Jimenez, Dekovic, & Hidalgo, 2009; Resnick & Burt, 1996).

이와 같이 우리의 국가정책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위기청소년이 학문영역에서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책과 실천을 도모하고 이론적으로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기존 위기청소년 연구들이 주로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미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 관련 문제와 현안을 제기하기에는 적합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학문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위기청소년 연구가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Khun(1970)이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만의 독특한 패러다임을 관측하고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다(Gupta & Bhattacharya, 2004). 이때 특정한 주제에 관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패러다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논문에서 특정 개념이 사용된 빈도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서지정보학 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Chiu & Ho, 2007). 최근에는 서지정보 검색 엔진이 고도화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발전하며 논문에서 언급된 핵심 키워드 도출 및 키워드 간 관계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동향 분석이 가능해졌다(김병선, 정민우, 전상은, 신동빈, 2015). 전통적인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에 컴퓨터 기술을 통한 도식화가 더해져 계량적으로 분석된 정보를 노드와 링크로 표현한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분석대상에 대한 의미 연관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점점 더 많은 학문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에 관한 국제 학술지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위기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거시적인 글로벌 연구 동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교육 및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을 분석한 홍세희 등(2019)의 연구,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을 분석한 박인하(2020)의 연구, 학교 폭력예방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미숙, 박미경, 고광숙, 김성길(2021)의 연구,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정미나와 문호영(2019)의 연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한 주경필(2022)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범위의 연구물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야의 이론 및 담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논의한 연구로는 지리공간정보의 글로벌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병선 등(2015)의 연구, 세계 해운경제의 연구 주제와 동향

을 분석한 장세은과 이수호(2016)의 연구, 항공관련 글로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주양과 장필식(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게재된 영문 학술논문의 전반적인 추세를 논문의 연도, 국가, 방법 등 주요한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대상 논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속성을 밝혀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가 담고 있는 전 세계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 및 교육 분야의 정책 및 실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 관련 담론에 관한 성찰과 향후 발전적인 이론 및 실천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에서 ‘위기(at risk)’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빈곤, 폭력, 가정결손, 임신, 비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학계와 실천 현장에서 명확한 합의나 동의 없이 사용되어 온 문제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윤철경 외, 2006;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 해, 손실에 노출된 상황(Oxford Languages, <http://languages.oup.com>) 또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이다. 청소년기에 위기는 청소년들의 개인적·내적 속성과 환경적·외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청소년기가 향후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

행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구분용 외, 2005).

위기청소년 개념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광의의 위기청소년은 현재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 더해 향후 위기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를 포괄하는 한편, 협의의 위기청소년은 현재 위기 상황에 부딪쳐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윤철경 외, 2006; 황여정, 이정민, 2020). 과거에는 학업 중단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와 같은 전통적인 청소년 과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에 부딪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인식하거나, 가정, 빈곤, 범죄, 건강 등의 문제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보는(OECD, 2007) 협의의 관점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현재의 위기 상황뿐 아니라 적절한 개입과 조치 없이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청소년의 위기로 인식하는 광의가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황순길 외, 2016).

Exzision과 Romi(2015)는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공통되고 두드러지는 개념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Matsuba, Elder, Petrucci, & Marleau, 2008), 일탈 행동(Lahav, 2004), 자아존중감(Abouserie, 1994; Schwartzwald, 1984), 성, 민족성, 문화, 부모 교육 수준과 직업, 사회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가정 환경 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Barnett, Vondra & Shonk, 1996; Berger & Shechter, 1987; Brandon & Hofferth, 2003; Levi-Zelik, 2002; Nagari, 2003; Shemesh, 1999), 가족 유대(Belsky, 1981; Bronfenbrenner, 1979), 사회적 유대(Janosz, Le Blanc, Boulerice, & Tremblay, 2000; Ronel & Gutter, 2000), 학교 경험(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Janosz et al., 2000; South, Haynie, & Bose, 2007), 여가 활동(Dolev et al., 1999; Workman, 1986), 애착(유형)(Bowlby, 1988; Maier, 1994)의 총

9가지 요소이다.

위기청소년을 위기의 수준 또는 단계를 연속선상에서 접근하여 개념적으로 분류한 시도도 있다. Burt, Rensick와 Matheson(1992)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기에 대한 개념적 틀을 위기 전조(risk antecedents), 위기 표식(risk markers), 위기 행동(risk behaviors), 위기 결과(risk outcomes)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McWhirter 등(2004)은 위기를 최저위기(minimal risk), 먼 위기(remote risk), 고위기(high risk), 임박한 위기(imminent risk), 위기에 처한 상황의 위기(at-risk category risk)로 제시하여 여러 위기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위기의 현재성과 심각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은 위험성, 문제행동, 환경,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위기를 고위험군(1수준), 위험군(2수준), 잠재적 위험군(3수준), 정상군(4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은 주요한 이론적 틀로 기능하였다(Polland, Hawkins & Arthur, 1999; 황순길 외, 2016). 위험요인은 청소년에게 발달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은 개인적·환경적 특성이나 변인을 의미하는데, Johnson(1997)은 이를 개인 위험요인, 가족 위험요인, 지역사회 위험요인, 학교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다. 개인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으로 학업, 성 관계, 약물남용, 비행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고, 가족 위험요인은 결손, 빈곤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정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 위험요인은 실업, 직업 훈련 기회박탈 등 청소년이 원활히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의미하고, 학교 위험요인은 학교폭력, 교육의 낮은 질 등 적절하지 못한 학교의 위험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인으로, 보호요인은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여 더 심각한 위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다(권재환, 이은희, 2005; 황순길 외, 2016).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황순길 등(2016)은 개인차원, 가족차원, 또래·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개인차원의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기통제력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거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가족차원의 보호요인은 원만한 가족관계와 가족 간 정서적 지지, 유대감, 친밀감 등이다. 또래·학교 보호요인은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뜻하고, 지역사회 보호요인은 종교, 지역사회 활동 등 청소년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요인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보호요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유의미한 타자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윤철경 외, 2005; 황여정, 이정민, 2020). 청소년이 또래 친구, 종교활동에서 만난 타인, 선후배, 지원기관 전문가 등과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청소년 위기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란 사물이나 인간의 상호연결로 정의된다(이수상, 2013). 네트워크 과학이란 컴퓨터과학, 생물학, 인지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독립된 개체요소

(elements) 또는 활동요소(actors)를 규명하고 그들 간의 연계성을 탐구한다. 네트워크 과학에서는 수학의 그래프 이론, 물리학의 통계역학, 컴퓨터과학의 데이터마이닝과 정보시각화, 통계학의 추론모델링, 사회학의 사회적 구조 등 다른 여러 연구영역에서 활용해 온 이론이나 방법을 차용한다(박치성, 정지원, 2013).

네트워크 과학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언어로 표현된 지식 간이나 특정한 지식에 포함된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지식 네트워크는 단어 간 결합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연구물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보내용(저자, 소속기관, 키워드, 참고문헌, 서지정보 등)에 따라 다른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지식 네트워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되고 그 결과는 지식의 구조와 내용 등을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지식 네트워크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텍스트이므로 텍스트 네트워크는 지식 네트워크의 한 형태이며, 지식 네트워크의 형태로 텍스트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작업은 연구물 텍스트 내 존재하는 의미 간 연관성을 과학적 엄격성에 의해 분석하기 때문에 과학계량학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박치성, 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에 포함된 개념적 내용을 도출하고 여러 언어들 간 의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네트워크의 속성과 분석 결과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를 지닌 개별 단어는 노드(node)로 표현하고 단어 간의 관계는 연결선(ties)으로 표시한다. 두 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정도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고 연결정도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선으로 관계되는 지로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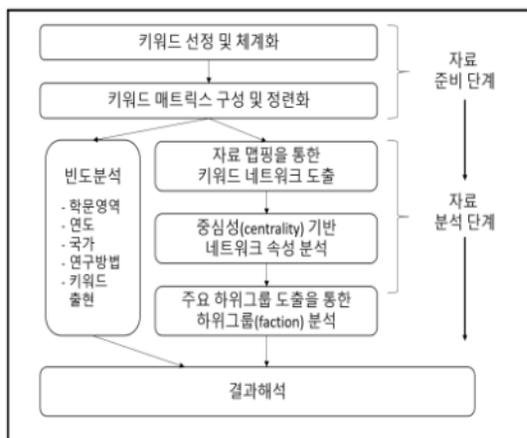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적 개념과 과정을 도식화와

계량화로 나타내는 것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현상을 관계로 표시하고 네트워크의 속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의 한 유형이다(윤소희, 2020).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분석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세분화된다(Scott & Carrington, 2011). 여기서 키워드 네트워크란 특정한 주제 영역의 연구물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들 간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그 빈도로부터 키워드 간 연관성을 계량화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이수상, 2014).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저자에 의해 제시된 키워드들의 동시발생적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으로서(Su & Lee, 2010), 연구물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윤소희, 2020).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분석대상 연구물은 web of science에서 제목(title)과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에 ‘youth at risk’ 또는 ‘at-risk youth’를 포함한 학술지 논문(article) 114편이다.

검색은 2022년 11월 10일에 최종 수행하여 1995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행된 논문이 검색되었다. web of science에서는 자료검색 시 다양한 준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대상 연구물 선정 시 제목(title)과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를 분석대상 논문 선정의 요건으로 설정하였다. 즉,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고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위기청소년을 다루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어떤 준거도 선택하지 않고 ‘youth at risk’와 ‘at-risk youth’를 검색하면 방대한 연구물이 검색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무관하거나 위기청소년을 연구의 주변 개념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기청소년을 주요한 연구 관심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다.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 작업을 크게 2단계로 나눠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분석대상 논문의 키워드를 있는 그대로 도출하고 이들의 의미와 표현상 유사한 것들을 개념상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하는 1차 키워드 정제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어 특정 민족을 표현한 키워드는 민족(ethnicity)으로 통합하였고,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는 단수로 변환하여 분석대상 언어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모험기반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이 강조되면 프로그램별 특징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코딩하였다. 저자가 국가명을 키워드에 포함한 경우, 국가별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별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코드에서 제

거하였다. 또한 특정 방법론을 키워드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방법론에 대한 빈도분석에서 다루기 때문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정제작업을 거쳐 575개의 키워드가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정제된 주제어들을 나열한 후, 발생 빈도를 엑셀시트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입력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관계형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youth at risk’를 포함하여 각 논문의 키워드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한 뒤, 순차적으로 키워드 간 1:1 관계를 부여하는 edgelist 방식으로 코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에 활용하였다. 총 1,312개의 행에 2열 코드가 생성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텍스트분석 프로그램인 UNICET(UNI64)을 사용하였다. 우선 정렬된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UNICET으로 계량화하였고 NetDraw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 논문들이 포함한 키워드 간 결속성(유기성)과 연속성을 도출하여 연구물 간 밀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속성을 분석하여 의미 연결망이 시사하는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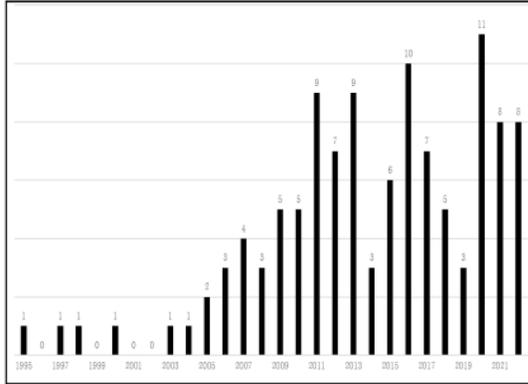
1. 빈도분석 결과

web of science의 분류에 의하면 분석대상 논문 114편이 게재된 학문영역은 사회복지, 가족학, 교육학, 범죄학 및 형법학, 융합 사회과학, 발달심리, 응용심리, 공공 환경·직업 보건, 정신의학, 융복합 심리, 임상심리, 사회학 등의 순이다.

<표 1> ‘위기청소년’ 논문의 학문영역 빈도분석 결과 (web of science 분류)

학문영역	빈도 (n=114)	비율
사회복지	25	21.9%
가족학	18	15.8%
교육학	15	13.1%
범죄학 및 형법학	11	9.6%
융합 사회과학	10	8.8%
발달심리	9	7.9%
응용심리	8	7.0%
공공 환경·직업 보건	8	7.0%
정신의학	7	6.1%
융복합심리	7	6.1%
임상심리	5	4.4%
사회학	5	4.4%
법학	3	2.6%
인류학	2	1.7%
환경학	2	1.7%
노인학	2	1.7%
보건정책서비스	2	1.7%
소아의학	2	1.7%
재활의학	2	1.7%
약물남용	2	1.7%
수의학	2	1.7%
지역 연구	1	0.9%
특수교육	1	0.9%
윤리학	1	0.9%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연도를 살펴보면, 최초 1995년에 1편이 발간되어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후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된 연도는 2020년으로 총 11편의 위기청소년을 주제로 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도별 논문 수에 대한 추세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빈도분석 결과

논문에서 다룬 청소년이 속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총 21개 국가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국이 46건(40%)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논문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서 이스라엘 19건(17%), 캐나다 12건(11%), 홍콩 6건(5%), 말레이시아(4%) 순이다. 국가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국가	빈도 (n=114)	비율
미국(USA)	46	40%
이스라엘(Israel)	19	17%
캐나다(Canada)	12	11%
홍콩(Hong Kong)	6	5%
말레이시아(Malaysia)	5	4%
남아프리카(South Africa)	4	4%
스페인(Spain)	4	4%
호주(Australia)	3	3%
싱가폴(Singapore)	3	3%
벨기에(Belgium)	1	1%
캄보디아(Cambodia)	1	1%
잉글랜드(England)	1	1%
핀란드(Finland)	1	1%
프랑스(France)	1	1%

국가	빈도 (n=114)	비율
과테말라(Guatemala)	1	1%
리투아니아(Lithuania)	1	1%
네덜란드(Netherlands)	1	1%
노르웨이(Norway)	1	1%
포르투갈(Portugal)	1	1%
슬로바키아(Slovakia)	1	1%
태국(Thailand)	1	1%

분석대상 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각각 51건(45%)과 49건(43%)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실증 연구가 아닌 개념적 논의 중심의 연구도 12건(11%), 혼합방법 연구가 2건(2%)이다. 연구방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방법 빈도분석 결과

연구방법	빈도 (n=114)	비율
양적 연구	51	45%
질적 연구	49	43%
개념적 논의	12	11%
혼합방법 연구	2	2%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 틀을 활용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양적 연구방법의 종류 빈도분석 결과

연구방법 종류	빈도 (n=114)	비율
조사연구	33	65%
실험연구	16	31%
메타분석 연구	2	4%

<표 5> 질적 연구방법의 종류 빈도분석 결과

연구방법 종류	빈도 (n=114)	비율
인터뷰	19	39%
사례연구	14	29%
텍스트 분석	4	8%
내러티브	3	6%
자기기술지	2	4%
합의적 질적 연구(CQR)	2	4%
실행연구	1	2%
초점그룹인터뷰(FGI)	1	2%
문화기술지	1	2%
현상학	1	2%
포토보이스	1	2%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연구(33%)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질적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활용했다고 밝힌 연구(39%)가 가장 많았다.

전체 575개의 키워드 중 출현 빈도 상위 키워드 22개는 <표 6>과 같다. 최상위 출현 6개의 키워드는 멘토링(mentoring), 회복탄력성(resilience), 소년(juvenile), 학교(school), 개입(intervention), 치료(therapy)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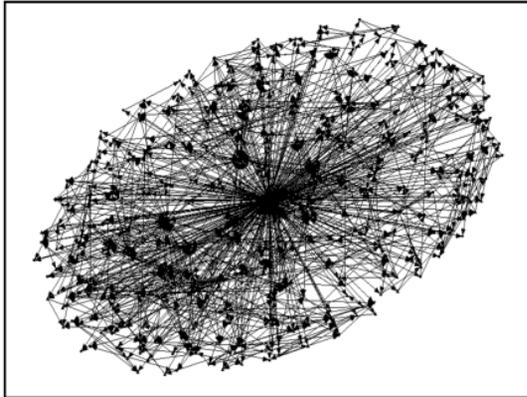
<표 6> 출현 빈도 상위 키워드(핵심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1	멘토링(mentoring)	14
2	회복탄력성(resilience)	11
3	소년(juvenile)	9
3	학교(school)	9
5	개입(intervention)	8
6	치료(therapy)	7
7	비행(delinquency)	6
7	교육(education)	6

순위	키워드	빈도
7	예방(prevention)	6
10	지역사회(community)	5
10	감정(emotion)	5
10	민족성(ethnicity)	5
10	아웃리치(outreach)	5
10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5
15	청소년기(adolescence)	4
15	태도(attitude)	4
15	문화(culture)	4
15	폭력배(gang)	4
15	정신건강(mental health)	4
15	부모(parent)	4
15	긍정적 청소년개발 (positive youth development)	4
15	자아효능감(self-efficacy)	4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먼저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형태 분석은 575개의 모든 키워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109개의 연결선이 만들어졌고, 밀도는 0.014로 연결망 응집력은 높지 않지만 연결계수는 0.637로 전체의 63% 정도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키워드가 평균 3,933개와 연결되어 있으며 평균 1.97단계를 거치면 키워드 간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키워드의 연결망은 밀도는 높지 않지만 중복연결이 많이 일어나 연결계수가 높고 평균거리가 짧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3>은 전체 키워드의 연결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전체 키워드 연결정도 분포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가 거듭제공의 법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 결과 키워드 간 맥함수 곡선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의 키워드와 이와 연관된 소수의 키워드가 연구주제로 동시에 활용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school)라는 키워드와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지는 다른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한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 근접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

순위	키워드	지수
1	멘토링(mentoring)	6.4
2	학교(school)	4.9
3	소년(juvenile)	4.3
4	회복탄력성(resilience)	4.0
5	비행(delinquency)	3.5
6	개입(intervention)	3.4
7	교육(education)	3.2
8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2.6
9	감정(emotion)	2.4
9	예방(prevention)	2.4

연결정도 중심성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연결된 정도로 논문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한 키워드를 말한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멘토링, 학교, 소년, 회복탄력성, 비행 등의 순이다. 이들 키워드가 위기청소년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들이었다.

다음으로 사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표 8>과 같다.

<표 8> 사이 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

순위	키워드	지수
1	멘토링(mentoring)	6.9
2	개입(intervention)	6.7
3	소년(juvenile)	6.6
4	회복탄력성(resilience)	5.6
5	폭력배(gang)	4.8
6	온라인(online)	4.6
7	학교(school)	4.3
8	민족성(ethnicity)	4.3
9	폭력(violence)	4.1
10	지역사회(community)	3.6

사이 중심성은 개별 키워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박지순, 2017). 따라서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주제를 탐색할 때 다양한 관련 개념들 간의 유의미한 연계성을 고려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멘토링, 개입, 소년, 회복탄력성, 폭력배, 온라인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표 9>와 같다.

<표 9> 근접 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

순위	키워드	지수
1	비행(delinquency)	86.15
2	예방(prevention)	78.75

밝혀졌다.

이상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통해서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힌 여러 관련 요인들이 저자들이 제시한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트워크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은 선행연구의 체계적인 요인 분류와는 달리 보다 복잡하고 비규칙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드러나듯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치료, 개입,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향후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연구영역을 확장할 부분이다. France(2009)는 청소년문제(the youth problem)에 관해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2000년대 이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며 위기청소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중심이었다고 지적한다(France, 2008). 특히 미디어가 청소년을 그리는 형상 속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문제중심 이미지가 강화되었다(Blackman, 2011). Wall과 Olofsson(2008)은 청소년을 문제로 보는 경향은 국제적인 청소년 연구분야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화에서 이런 기성세대 중심, 문제 중심의 부정적인 함의를 벗어나 청소년 관점과 입장이 반영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을 web of science에서 제목과 저자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web of science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 중심의 연구물이 주로 검색되는 한계를 지닌다. 연구의 범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더욱 포괄적으로 다양한 색인과

검색 도구를 활용한 종합적인 동향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며, 국내 연구 동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학문 생태계의 차이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발전적인 위기청소년 관련 지식에 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외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2. 11. 05 인출.
- 권재환,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미숙, 박미경, 고광숙, 김성길(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미래교육연구, 11(2), 21-64.
- 김병선, 정민우, 전상은, 신동빈(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지리공간정보의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한국공간정보사회, 23(1), 69-77.
-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인하(2020).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50, 53-73.
- 박지순(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장애인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 연구, 56(2), 107-126.
- 박치성·정지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과악 사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 11. 05. 인출
- 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윤소희(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교장 지도성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8(1), 141-168.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2006).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수상(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부산: 논형
- 이주양, 장필식(2017). 키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항공관련 글로벌 연구동향 분석: 스코퍼스(Scopus)개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5), 169 - 178.
- 이창호, 김영란, 김택호, 박재연, 유순덕, 은혁기 외 (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이희현, 황준성, 유경훈, 정동철, 이주하, 김성기 (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장세은, 이수호(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세계 해운경제의 연구 주제와 동향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1), 79-95.
- 정미나, 문호영(2019).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57, 100-122.
- 주경필(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비교를 중심으로. *KNOU 논총*, 73, 117-135.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운경(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동향. *한국청소년연구*, 30(2), 2073-301.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여정, 이정민(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bouserie, R. (1994). Sources of stress in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14(3), 323 - 330.
- Barnett, D., Vondra, J. I., & Shonk, S. M. (1996). Self-perceptions, motivation, and school function of low-income maltreated and comparison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0(5), 397 - 410.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3 - 23.
- Berger, R., & Shechter, Y. (1987). Girls in distress: A group at the crossroads of risk. *HevrauRevava (Society and Welfare)*, 5, 344 - 356.
- Blackmann, S. (2011). Rituals of intoxication: Young people, drugs, risk and leisure. In P. Bramham & S. Wagg (Eds), *The New Politics of Leisure and Pleasure*, 97 - 118. London: Palgrave.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andon, P. D., & Hofferth, S. L. (2003). Determinants of out-of-school childcare arrangements among children in single-mother and two-parent families. *Social Science Research*, 32(1), 129 - 14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Press.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hiu, W. T; Ho, Y. S. (2007), Bibliometric analysis of tsunami research, *Scientometrics*, 73(1), :3-17.
- Dolev, T., Kahan-Strawczynski, P., & Shemes, A. (1999). *Survey of characteristics of youth in the care of the Division for the Enhancement of Youth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report*. The Joint-Brookdale Institute(Hebrew): Jerusalem.
- Etzion, D. & Romi, S. (2015). Typology of youth a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59(2015), 184-195.
- Follesø, R. (2015). Youth at risk or temrs at risk? *Young*, 23(3), 240-253.
- France, A. (2009). Changing conceptions of youth in late modernity. In J. Wood & J. Hine (Eds), *Work with Young People*, 15 -27. London: Sage Publications.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 - 109.
- Gupta, B. M; Bhattacharya, S. (2004), A bibliometric approach towar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SIDOC Bulletin of Information Technology*, 24, 3-8.
- Janosz, M., Le Blanc, M., Boulerice, B., & Tremblay, R. E. (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chool dropouts: A typology approach with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71 - 190.
- Jimenez, L., Dekovic, M., & Hidalgo, V. (2009).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ing up in at-risk famili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individual,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6), 654 - 661
- Johnson, G. M. (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42(1), 19-26.
-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hav, H. (2004). Dropping out of school: The debate about the numbers and about who pays the price. *Minituk le Shiluv (From Detachment to Inclusion)*, 12, 7 - 20.
- Levi-Zelik, N. (2002) *Socio-demographic effects on self-perception of learning difficulties and risk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Bar-Ilan University, Ramat Gan, Israel.
- Maier, H. W. (1994). Attachment development is "in". *Journal of Child and Youth Care*, 9(1), 35 - 51.
- Matsuba, M. K., Elder, G. J., Petrucci, F., & Marleau, T. (2008). Employment training for at-risk youth: A program evaluation focusing on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 & Youth Care Forum*, 37(1), 15 - 26.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CA: U Brooks, Cole-Thomson Learning.
- Nagari, A. (2003). *The significant of the inter-*

- vention process in Zofia home (a center for crisis intervention for girls at risk and in distress) as perceived by the girls residing the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Israeli branch of Leeds University.
- OECD(2007). *Education policies for students at risk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n South Eastern Europe*.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38613229.pdf>
- Oxford Languages. Retrieved from <http://languages.oup.com> on 11/05/2022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Resnick, G., & Burt, M. R. (1996). Youth at risk: Definitions and implications for service delive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6*(2), 172-188.
- Ronel, N., & Gutter, N. (2000). *The ELEM "Children of the Night" patrol cars: Street work with adolescents in Israel*. Tel Aviv: The Forum on Children and Adolescents. Tel Aviv University.
- Shemesh, A. (1999). Attributes of detached adolescents of Ethiopian descent. *Minituk le Shiluv (From Detachment to Inclusion), 9*, 45 -57.
- Schwartzwald, Y. (1984). Social and educational meanings of self-value. *Psychologia veYeutz beHinukh (Psychology and Counselling in Education), 71* -89.
- Scott, J., & Carrington, P. J. (2011). *Sage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Eds.). London, UK: Sage.
- South, S. J., Haynie, D. L., & Bose, S. (2007). Student mobility and school dropout. *Social Science Research, 36*(1), 68 -94.
- Su, H. N., & Lee, P. C. (2010). Mapping knowledge structure by keyword co-occurrence: A first look at journal papers in technology foresight. *Scientometrics, 85*(1), 65 -79
- Wall, E. & Olofsson, A. (2008). Young people making sense of risk: How meanings of risk are materialized within the social context of everyday life. *Young: Nordic Journal of Youth Research, 16*(4), 431 -448.
- Workman, B. (1986). Dear professor: This is what I want you to know. *Phi Delta Kappan, 67*, 668 -671.

투고일자: 2022. 11. 15.

심사일자: 2022. 11. 30.

게재확정일자: 2022. 12. 23.

Examining the global research trend on ‘youth at risk’: Focusing on a keyword network analysis

KyoungPhil Joo*

InHeok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University of Georgia

The issue of at-risk youths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addressed in diverse fields, and is also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target group in South Korea by youth and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on key themes using a total of 114 academic journal articles through the Web of Science’s database on at-risk youths published for the period from 1995 to 2022.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 articles concerning youth at risk were publish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including social work, family studies, education, criminology, psychology, and so on. The keyword networks indicate sporadic patterns in terms of the connections among the keywords. Also,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has resulted in several main sub-networks. We identified major trends in at-risk youth research and suggested a comprehensive research trend found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On the basis of our findings, we also discussed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s on at-risk youths.

Keywords: Youth at risk, Research trend, Global, Keyword Network Analysis